

# 힘 있는 글을 위한 문장 만들기

- '문장력'을 기르는 9가지 방법 -

2023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글말특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이지연

# 강의의 목표와 구성

## 강의목표

- 공적 글쓰기에 필요한 문장의 기본
- 가독성, 전달력, 매력 있는 문장을 쓰는 법
-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글쓰기 연습의 비결

## 구성과 목차

### 1부.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문장 쓰기

1. '주어'와 '서술어'가 매끄럽게 연결되는가?
2. 문장의 길이가 짧고 메시지가 간결한가?
3. 불필요한 명사 대신 동사를 사용했는가?

### 2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문장 쓰기

4. 힘을 주거나 빼야 할 곳을 구분했는가?
5.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했는가?
6.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 3부. 또 읽고 싶어지는 문장 쓰기

7. 같은 어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8. 객관적인 시각과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9. 구어체나 줄임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 4부. 문장 연습의 TIP

## '힘 있는 글'과 '힘 없는 글'

글쓰기를 블록 쌓기라고 생각해보자.  
블록을 쌓아 집 모형을 만들려고 한다.

블록을 쌓아 만든 집이 한 편의 완성된 글이라면,  
내 글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은 각각의 블록에 해당한다.

내가 가진 블록이 이 모형에 알맞은 것인지,  
내가 끼운 블록의 위치는 적절한지,  
블록들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블록들의 색깔이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글을 단단하게, 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 1부.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문장 쓰기

## 가독성이 높은 글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주어'와 '서술어'가 매끄럽게 연결되는가?

.....

2. 문장의 길이가 짧고 메시지가 간결한가?

.....

3. 불필요한 명사 대신 동사를 사용했는가?

.....

# 1부.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문장 쓰기

## 1. '주어'와 '서술어'가 매끄럽게 연결되는가?

- 문장 성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주성분'과 '부속 성분'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

- 주술 호응:**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한 쌍'으로 움직여야 한다.
- 조사에 주의하자:** 무엇이 주어를 주어로, 목적어를 목적어로, 서술어를 서술어로 만드는가?

나는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X)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O)

나의 목표는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O)

나는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O)

# 1부.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문장 쓰기

## 2. 문장의 길이가 짧고 메시지가 간결한가?

-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길이가 짧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 문장이 너무 길면 적당한 곳에서 자르고, 독립된 문장으로 만든다. 필요한 경우 접속어를 활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사회에 불러온 변화로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진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을 30%에서 79%로 두 배 이상 급증시키고 1인 노인 가구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과 졸혼, 자녀와의 교류 감소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사회에 불러온 두 가지 변화가 있다. / ② **하나**는, 외출이 어려워진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30%에서 79%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 ③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과 졸혼, 자녀와의 교류 감소 등으로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단, 잘못된 접속어의 사용은 문장이 뚝뚝 끊기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접속어의 의미**에 유의할 것!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 )

# 1부.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문장 쓰기

## 2. 문장의 길이가 짧고 메시지가 간결한가?

- 군더더기를 없애라: 지나치게 많은 수식어 또는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피한다.

해안선을 따라서 줄지어 선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은 빈틈아있을 곳 없이 다닥다닥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은 해안선을 따라 빈틈없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할 수 있어 전 세계 곳곳에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전 세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장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집합인 단락 역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용이 구분되거나 호흡이 끊기는 곳에서 단락을 구분해 주자. 엔터(Enter) 키를 아끼지 말 것! (한 단락은 5~7줄 정도가 적당)

# 1부.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문장 쓰기

## 3. 불필요한 명사 대신 동사를 사용했는가?

- 명사형 표현의 남용을 피하고, (능)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고금리 상태에서 과거 대비 국가 경제 성장세 둔화의 지속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경기 침체 우려에 직면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금리 하락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확신과 현 상황을 견뎌낼 심리적 내성이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가 계속해서 느려진다면,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어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 이때 경제 주체들은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

인간에 의해 초래된 생태계의 파괴로 자연의 본래적인 정화 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의 파괴로 자연은 본래 지니고 있던 정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한국어 문장은 피동문보다 능동문으로 읽을 때 더욱 자연스럽게. 굳이 명사형으로 만들거나 피동형으로 만들 필요 없이, (능)동사·형용사를 활용하여 **종결 또는 연결 형태의 서술형** 문장을 만들어 보자.



## 2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문장 쓰기

### 핵심을 알기 쉬운 글을 위한 체크리스트

4. 힘을 주거나 빼야 할 곳을 구분했는가?

.....



5.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했는가?

.....



6.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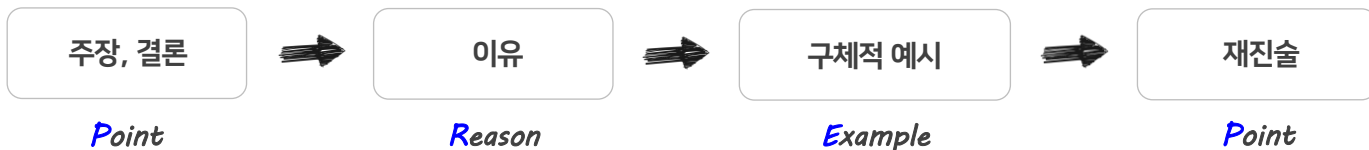
.....



## 2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문장 쓰기

### 4. 힘을 주거나 빼야 할 곳을 구분했는가?

-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주장)을 먼저 쓰고, 부차적인 설명은 그 뒤에 쓴다.
- PREP형 글쓰기를 활용한다.



침표(.)나 따옴표(') 등 적절한 부호를 사용하여 중요한 개념 또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핵심은 문장의 모든 부분에 힘을 주어 '강·강·강·강'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완급 조절을 통해 탄력과 리듬감을 갖춘 문장을 만들어 보자.

## 2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문장 쓰기

### 5.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했는가?

- 모호-하다(模糊하다) : 말이나 태도가 흐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다.
- 가리키는 대상과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한다.

공동체 생활을 처음 접하는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X)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인 00병원에서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X)

2020년부터 2023년까지 00자동차에서 개인 고객 대상으로 자동차 영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X)

## 2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문장 쓰기

### 6.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 불필요하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다면 쉬운 말로 풀어서 쓴다.
-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은 최대한 단순한 형식으로 해체한다.

2001년 OO기업과 맺은 MOU와 관련한 회의 결과를 이첩하였더니, 가급적 신속하게 제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왔다. 2001년 OO기업과 맺은 MOU\*와 관련한 회의 결과를 다른 부서에 보냈더니, 가능한 한 빠르게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왔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준말로, 국가 간의 외교 교섭 결과, 서로 수용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하는 문서. 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 내가 임의로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부. 또 읽고 싶어지는 문장 쓰기

### 지루하지 않은 글을 위한 체크리스트

7. 같은 어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

8. 객관적인 시각과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

9. 구어체나 줄임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

## 3부. 또 읽고 싶어지는 문장 쓰기

### 7. 같은 어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한다.
- 같은 의미의 개념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문장을 **변주**하여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전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다. **환경 문제**는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환경 문제**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불러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 문제**는 이제 전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다.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기후 및 생태계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 삶 역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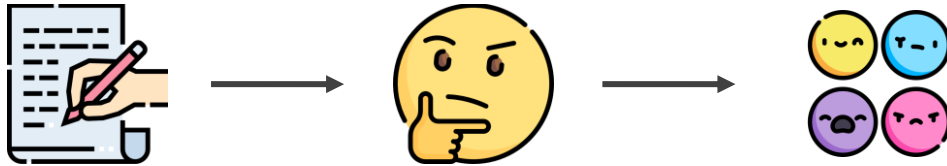


국어사전의 '유의어'를 활용하자.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울 경우, 문장 성분을 바꾸어 주면 단조로운 느낌이 덜해지는 효과가 있다.

## 3부. 또 읽고 싶어지는 문장 쓰기

### 8. 객관적인 시각과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 과도한 편향과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독자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논리적 글쓰기에서, 내 글의 설득력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내가 지닌 구체적 경험들과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에서 나온다.

## 3부. 또 읽고 싶어지는 문장 쓰기

### 9. 구어체나 줄임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 실제 발화 현장에서 쓰이는 구어체나 줄임말을 공적 글쓰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일상어로 고착된 인터넷 용어나 유행어의 사용을 지양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딱 사용하자**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교사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미리 막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X)

많은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X)

지난 봄에 발매된 신곡을 듣자마자 1위 **재질**이라는 걸 알았다. (X)



불필요한 외국어 표현 역시 주의하자.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말을 쓸 것!



## 4부. 문장 연습의 TIP

-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 고쳐 쓰고, 다듬어라
- 메모와 필사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 같은 문장을 다르게 써 보라
- 많이 읽고, 많이 써라

## 4부. 문장 연습의 TIP

-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 문장은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쓴다.
- 문장의 진짜 의미는 독자가 읽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 문장은 필자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희모, 『문장의 비결』(2023:30~31)

- 글의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를 상정하여 표현에 유의한다. (보고서? 논문?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문학적인 글?)
- 평가받아야 할 글이라면, 독자가 내 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쓴다. ('출제자의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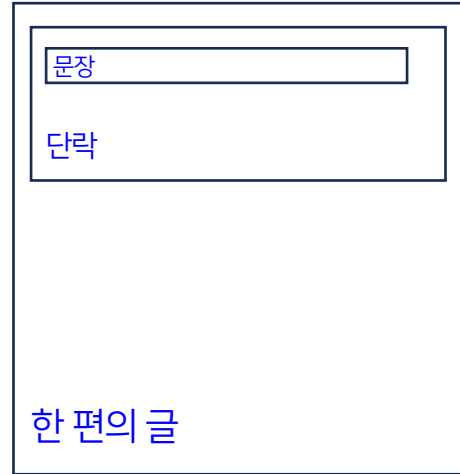
## 4부. 문장 연습의 TIP

### ▪ 고쳐 쓰고, 다듬어라

- 다 쓰고 나면 꼭 소리내어 읽어 본다.
- 컴퓨터로 쓰고 나면 종이로 인쇄하여 한 번 더 읽어 본다.
- 어디가 어색한지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 봐 달라고 한다.
- 글의 전체적인 개요(목차), 단락의 구성, 문장 순으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한다.
- 고쳐 쓰고 다듬어 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먼저 개요를 바탕으로 편하게 초고를 쓰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 하나의 문장을 쓸 때마다 고쳐 쓰는 것보다는 초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글의 전체 흐름에 맞게 수정하는 편이 좋다.



## 4부. 문장 연습의 TIP

### ▪ 메모와 필사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 (1) '생각하면서' 베껴 쓰기: 문장의 구조, 표현 방식,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

그런 여름날 속에서 경애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맥주와 옥수수뿐이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옥수수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경애는 이삼 일에 한번씩 나가서 옥수수를 사왔다. 옥수수의 힘센 잎들, 동물의 것처럼 부드러운 수염, 그리고 아주 짝 차오른 알갱이들을 보고 있으면 창으로 문득 들어오는 밤바람을 느끼듯 어떤 환기가 들면서 산다, 라는 말이 생각나곤 했다. 경애가 이 방에서 하릴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저 밖에는 '산다'라는 것이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성장하고 싸우며 견디고 있다는 것. 다행히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여름의 낮을 보내다 슬리퍼를 끌고 시장으로 나가면 그 살고 있는 것들을 두 손 무겁게 사들고 어쨌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애도 아무튼 살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들면 경애는 불현듯 약속을 잡아보다가도 낮이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외출을 취소하곤 했다.

김금희, 『경애의 마음』(2018:97)

#### (2) 좋아하는 문장 찾기: 자주 읽고, 떠올리고 싶은 문장 간직하기

- 자신이 쓸 글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여 필사할 텍스트를 고른다.
-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문체를 접해 보는 경험은 나만의 문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 4부. 문장 연습의 TIP

### ▪ 같은 문장을 다르게 써 보라

-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도 표현을 다르게 하거나 구조를 바꾸면 새로운 문장이 된다.
- 다양한 문장 쓰기를 통해 내 문장이 지닐 수 있는 여러 의미와 매력을 탐험해 보자.

“저는 이른 아침 누구와도 고개를 마주치지 않은 채 도서관으로 갑니다.”

SBS <집사부일체> 223회 (2022. 6. 5.)

“이른 아침,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꼭 숙이고 백양로를 걸어 올라가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저예요.”

“따라서 인간 사고에 대한 단순한 결정론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사고 과정은 명확한 인과 관계를 통해 몸과 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의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자신이 자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결정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물리법칙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법칙은 우리의 몸과 분자의 운동에 명확한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개인의 마음은 인과 관계를 통하여 완전히 파악 또는 예측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자아가 자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게 된다.”

에드워드 윌슨, 『통섭』(2022:222)

## 4부. 문장 연습의 TIP

- **많이 읽고, 많이 써라**
  -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자.
  - 매일 한 줄씩, 또는 한 단락씩 써 본다.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쓰는 것이다.
  - **문장 연습은 사고 연습**이기도 하다. 꾸준히 쓰면서 흩어져 있던 생각을 정리하고,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과거에 썼던 문장과 오늘 내가 쓴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한다.**





## 참고문헌

김금희(2018), 『경애의 마음』, 창비.

김지현·김한결(2021), 「취업목적 자기소개서의 첨삭 피드백 분석-성장과정과 지원동기를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14-3, 한국사고와표현학회.

김혜정·안태형·임지아,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어색한 문장 사용 양상」, 『우리말연구』 46, 우리말학회.

에드워드 윌슨(2022), 『통섭』, 최재천·장대의 옮김, 사이언스북스.

이연정(2021), 「대학 신입생 글쓰기에 나타난 문장 오류 양상 분석」, 『어문논집』 86, 중앙어문학회.

정희모(2023), 『문장의 비결』, 들녘.

후지요시 유타카·오가와 마리코(2022), 『결국은 문장력이다』, 양지영 옮김, 성안당.

<집사부일체> 223회(2022. 6. 5.), SBS.